

# ‘불문학과 디자인학’의 공동강좌

- 기초학문과 응용학문의 만남 -

진 형 준 | 홍익대 불어불문학과 교수

나는 프랑스문학을 전공한 불문학자이다. 하지만 내가 여기서 소개하고자 하는 수업은 내가 불문과에서 하고 있는 수업이 아니라 미술대학 디자인 학과의 모 교수와 공동으로 개설하여 대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는 <이미지와 상상력>이라는 강좌이다. 그리고 이 글은 독특한 수업 방식을 소개하는 글이라기 보다, 필자는 이 강좌가 왜, 어떻게 개설되게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의 글로 삼으려 한다.

사실 이 강좌 내용에 관한 소개의 글을 필자가 쓰게 되었지만 사실 이 강좌가 개설된 것은 진적으로 모 교수의 의도와 제안에 의한 것이었으며, 필자는 그 제안과 의도를 수락했을 뿐이다.

## 1. 불문학과 디자인학의 결합, 그 연계강좌

불문학과 디자인학의 결합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불문학은 인문학의 한 범주에 속하는 기초학문이고, 디자인은 응용학문이다. 전자가 넓은 의미에서 인간의 존재 의미,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자연, 인간과 사회의

관계 및 의미에 대하여 질문하고 이해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이라면, 후자는 자신의 능력과 작업이 한 사회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가를 모색하고 가르치는 실용적인 학문이다. 둘다 같은 학문이지만 그 성격은 판이하다. 그런데 어떻게 이 상이한 학문이 결합하여 하나의 공동강좌를 이룰 수 있는가? 근래 우리의 교육개혁은 학문의 실용성을 강조하고, 이러한 교육을 강화, 실천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학문의 실용성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평소 필자의 생각이기도 했지만, 대학교육에서 학문의 실용성에 대한 강조는 곧 기초학문에 대한 경시와 파괴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필자가 항상 품고 있었던 생각이었다.

필자는 여기서 현재 교육부 주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정책에 대한 필자의 평소 견해를 길게 늘어놓을 생각은 없다. 많은 분들이 대학에서의 기초학문의 파괴는 궁극적으로는 우리 나라 교육 전체의 파괴를 초래할 것이며, 더 나아가 국가 전체의 장래가 암담해질거라고 경고한 바 있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한 분들도 있기 때문이며,<sup>1)</sup> 무엇보다도 글의 주제에서 벗어날 것이기 때문

1) 이 중 대표적인 글이 문학계간지 『21세기 문학』에 실린 유평근 교수의 ‘대학과 인간화 교육’이다.

이다.

대학에서 불문학을 연구하고 강의하면서 이러한 염려와 자괴감 비슷한 것에 젖어 있을 때 디자인학과의 모교수가 내게 불문학과와 디자인학과 대학원을 연계할 수 있는 강좌의 개발과 개설을 제의해 왔고, 그 제안은 필자의 무력감을 씻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디자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랫동안 강의를 해오면서 학생들이 이른바 인문학적 토대에 목말라 하고 있음을 느꼈다는 것이 모교수의 말이었으며, 한편으로 필자가 가르치고 있는 인문학의 한 범주로서의 불문학이 결코 비 실천적인 학문이 아니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합의의 보았다.

그리고 강좌의 제목은 <이미지와 상상력>으로 결정되었다. 이미지와 상상력은 불문학 내에서 나의 전공분야였고, 디자인은 이미지를 실질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분야라는 점에서 두 학문 사이에 저절로 연계점이 찾아질 수 있는 강좌명이었다. "올바로 산다는 것도 힘든데 창작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디자인학과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모교수의 의도와 불문학을 전공하고 배우면서 습득하는 지식들이 현실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체험하게 하고 싶다는 나의 의도가 맞아떨어진 것이었다. 또 디자인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우리의 강의를 들으면서 과연 실질적으로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필자는 나름대로의 고민을 했는데 전에 쓴 글이 있어 그대로 인용해 보기로 한다.

나는 디자인을 잘 할 수 있는 상상력 개발을 위해 이 강의를 맡은 것이 아니라, '디자인이란 무엇인가?' 라는 고민의 범주를 조금이나마 확장시키고 심화시킬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맡았던 것이고, 그것은 바로 모교수의 생각이기도 했다. 그 의도가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내 전공이라고 할

수 있는 소설, 시쓰기에 빚대어 설명해 보기로 하자. 한사람이 소설가가 되기로 작정을 하고 소설을 공부한다고 할 때 그가 배우고 공부하는 것은 소설에 대한 지식도 아니고, 소설을 쓰는 기술도 아니다.(...)

소설가가 되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그에게는 이미 그 무언가가 예비되어 있고, 그렇게 준비된 상태에서 소설 쓰기를 시작한 이후에도 '소설이란 무엇인가?', '소설을 쓴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끊임 없이 고개를 들게 되어 있다. 이러한 고민은 당장에 소설 쓰는 기술을 향상시키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 질문은 그의 소설에 깊이와 의미를 주고 그의 소설에 독창성을 부여한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 고민만으로 그의 소설이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적어도 그가 소설가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고민은 필수적인 것이 된다.

내가 시각디자인과 강의를 맡으면서 생각한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었다. 산업사회의 산물이라 쉽게 간주되는 디자인은 과연 일반 상품과 마찬가지로 상품논리, 마케팅논리, 내용을 포장하는 형식논리, 효용성논리 등에 그대로 함몰되어 수동적으로 기술습득과 향상에 힘쓰면 되는 분야일까?(...)

내가 하나의 작품을 디자인하고 기획하여 생산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내 작품 생산이 의미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어떤 시선을 가져야 하는가? 등등의 질문이 학생들 내부에서 싹틀 수 있도록 약간의 자극이 되는 것, 그런 소박한 바람으로 나는 이 강의를 맡았다.<sup>2)</sup>

## 2. 강의 방식

사실 우리의 강의에 특별히 내세우거나 강조할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앞서 설명한 강의 취지가 잘 살아날 수 있도록 몇 개의 원칙만 정하고 그것을 그대로 실행할

2) 참고 "디자인 이미지의 제국 : 인문학으로 본 이미지의 가치" in 「모던 디자인 비평」, 창간호, pp13 참조.

뿐, 강의 방법 자체에 혁신적인 것은 별로 없다. 기초학문과 응용학문이 만나 공통강좌를 개설하고, 그것이 나름대로 효과적으로 운용된다면 의미가 있는 것이며, 이 강좌의 의미는 바로 이 점에 있지 강의방법 자체에 있다고는 또한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에 강의 방식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강좌 제목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내 나름의 간략한 강의가 주어진다. 하지만 이 강의의 초점은 지식 전달에 맞추어지기 보다 일종의 문제제기 형식에 맞추어진다. 즉,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강의 내용을 습득하기 보다 강의 내용에 따라 스스로에게 새롭게 적극적인 하나의 자극이 형성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모교수의 표현 대로 이 강의를 통해 어떤 스파크가 될지는 전적으로 학생의 몫이지 교수의 몫은 아니다. 우리는 학생들의 그러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자매체를 적극 활용한다. 이것은 그 날의 강의 내용뿐 아니라 미리 학생들에게 읽도록 권유한 책의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 사항을 강좌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노트북과 환등기를 사용해 질문 내용들을 화면에 띄우고, 질문에 대한 답변, 토론 등으로 강의를 이끌어 나간다. 교수 사이의 토론도 그대로 생생하게 진행되며 토론 사이 학생들 나름대로의 의견도 자유롭게 개진된다. 강좌가 이루어지기 전에 학생들을 통해 제기되는 질문의 양은 대단히 많으며, 그만큼 내용도 다양하다. 그중 한 질문을 예로 들어본다.

- 이미지와 상상력 4번째 수업을 앞둔 오전 초조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어지럽도록 꿈속에 빠져드는 나를 느꼈다. 그러나 정신을 가다듬고, 디자이너인 나로부터 처음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자꾸만 멀리 달아나시는 진형준 선생님께서 바지가람이 부여잡는 심정으로 여쭙고 싶다 그렇다면 "우리 디자이너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좋은 이미

지 나쁜 이미지를 판단하도록 훈련받고 숙련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미지와 상상력은 이미지를 만들기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만들어진 이미지를 기능할 수 있어야 하고, 다시 상상하고 전략적으로 꿈꾸는 것이 디자인 상상력이라면, 그 깊고도 먼 상상력의 바다 안에 계신 진형준 선생님께서 만약 디자인에 당면하신다면 즉, 진형준 선생님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상대방의 스타일을 보고 느끼시고 자신의 옷차림을 선택하시고 신문광고를 보고 느끼실 때 어떻게 느끼고, 또 특히 어떻게 기능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실 수 있으신지요..."

- 또, 이미지와 상상력은 분명 디자인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닐지언데..., 상상력을 키우는 수업이 아니라는 기대를 버리고도 자꾸만 원론으로 돌아가는 나는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나는 바보인가..?

상상력 개발이 아닌 '디자인은 무엇인가'의 고민의 범주를 확장시키고 심화시킨다는 것은 상상력 개발과 무엇이 다른 말인가요? 손에 쥐면 사라지고 몸을 담그면 느껴지는 물과 같은 상상력과 이미지를 이번 학기 내내 손아귀에 힘만 부여주고 인간됨을 쓸 나를 확연히 그려보며 오늘은 이 어리석음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을 것인지 꿈꾸어 봅니다.

- 아래의 이상화양의 독후감을 읽고 저는 가슴 뿌듯한 감동과 저린 그리움을 느꼈습니다. 제 3의 눈이라는 단어의 활용은 조금 딱딱하지만 상상력은 또 하나의 소중한 눈이며 힘입니다. 그것이 진정 진실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보물인지 모른다는 그녀의 정리는 제게 따뜻한 미음의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었습니다.


저는 구제받았다고 했습니다('디자인문화비평', 진형준 선생님의 글을 읽고) 너무나 성급한 판단이라고 했습니다(진형준 선생님께서). 그러나 저는 또 성급하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남들이 찾지 못하지만 찾아 해매는 것 중의 가장 멋지고 귀중한 것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학생의 느낌과 궁금증들이 뒤섞여 있는 글들에 대해 답변하고 토론하면서 우리의 논의는 확장되기도 하고 곁돌기도 한다. 모 교수와 나는 그 논의에 참여하면서 논의의 범주를 확장되는 대로 내버려두기도 하고, 계획된 범주로 끌어들이기도 한다. 원칙은 단 한가지, 학생들의 구체적인 고민과 만나는 장을 유지하는 것. '이미지와 상상력'에 대한 공부 및 논의가 자칫 학생들의 구체적인 고민 및 구체적인 작업과는 무관한 추상적인 범주인 양 오해되는 것을 경계하기 등이었다.

### 3. 강의 결과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강의가 정말로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이 되었냐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확실하게 대답할 자신은 없다. 올해로 3년째 이런 강의를 계속해 오고 있지만 그래도 어떠한 확신도 자신감도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모 교수가 디자인학과 학생들에게 일종의 과제로 주어서 해오고 있는 작업, 즉 한학기의 강좌 내용, 이 강좌를 빌미로 하여 만난 사람들(우리는 한학기에 몇 명의 초빙강사를 초청하여 강의를 부탁하기도 하며 학생들에게 관심 있는 사람을 찾아 인터뷰해 올 것을 과제로

주기도 한다)에 관한 내용을 한 권의 책으로 엮도록 한 작업은 이 강좌의 의미에 대해, 그 성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올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물이다. 이 책은 완전히 학생들의 주도 하에 만들어지는 책이다.

이 책은 이미 주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형식을 디자인하는 책이 아니라 학생 자신이 내용과 형식을 완전히 자율적으로 꾸미는 책이다. 이 책은 내용이 디자인하는 사람의 밖에 존재하는 수동적인 책이 아니라 디자인의 내용에 대한 디자인까지 포함하는 적극적인 책이다. 그 가시적인 성과물을 통해 기초학문을 하는 나와 응용학문을 전공하는 모 교수는 한 곳에서 만난다. 그 자리는 바로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간을 보다 깊이 이해하려는 자리이다. 

---

#### 진형준

서울대 불문과 대학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1982년부터 홍익대 불어불문학과 교수, 문학평론가, 서울상상력연구소 주간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깊이의 시학』, 『또 하나의 세상』, 『이주 멀리 되 돌아 오는 길』, 『상상적인 것의 인간학』 등이 있다.